

(초고)

타자시각에서 본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형상 연구

田月梅 (중국 천진사범대학교)

1. 서론
2. '너', 유토피아 형상으로서의 중국인
 - 2.1 중국 여성의 사회 지위와 자아실현 형상
 - 2.2 한국과 한류에 매료된 10대 중국 소년 형상
3. '그', 이데올로기 형상으로서의 중국인
 - 3.1 가난하고 편견 받는 하층민 형상
 - 3.2 사기치고 살인하는 범법자 형상
4. 결론

1. 서론

중국과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이웃인바 역사적으로 장기적이고 깊은 교류를 해왔다. 고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당나라와 남북조 등 나라와 문화, 무역교류를 하였고 고려는 정치적으로 송나라와 밀접한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양국은 빈번한 교역을 통해 문물을 교환하였다. 조선은 전통적인 외교정책의 하나로 명나라·청나라에 대해 사대 정책을 취하였는데 조공과 회사(回賜)의 형식을 통한 교류를 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을 거쳐 조선은 완전한 독립국임을 확인받고 정치적인 종속관계는 없어진다. 근대에 들어서서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많은 항일지사들이 중국에서 한국독립운동을 펼쳤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과 국민정부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화북의 조선의용대는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대한민국 상하이임시정부는 국민당의 물심양면의 도움을 받았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이후 중한관계는 부동한 이데올로기로 반세기 침묵을 지켜오다가 1980년대 말이 되어서야 외교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방문이 허락되어 상호 간의 학술, 언론, 특히 이산가족 교류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1992년 8월 중한수교로 이루어져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고대에서 근현대, 당대로 이어오는 이러한 중한교류는 문물이나 무역교류로부터 문화나 문학교류로 이어졌다. 이러한 교류는 양국의 문학작품에도 반영되었는바 현재 고대에서 중한수교이전까지 한국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중국과 중국인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다만 중한수교이후의 연구는 아직 미비한 편인데 이는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작품이 창작되고 있으며 가변성의 특징을 띠고 있다는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중한수교이후 중국 혹은 중국인이 등장하는 한국현대소설로는 오정희의 단편소설 <중국인 거리>(1994), 강석경의 단편소설 <300마일>(2002), 박찬순의 단편소설 <가리봉 양꼬치>(2009)와 <지하삼림을 가다>(2009), 조정래의 장편소설 『정글만리』(2013), 김연수의 단편소설 <나는 유명작가입니다>와 <밤을 노래합니다>, 김인숙의 단편소설 <바다와 나비>, 김노의 단편소설 <중국여자, 한국남자>, 이현수의 단편소설 <난징의 아침>, 하성란의 단편소설 <중국식 롤렛> 등이 있다. 여기에 관련된 기존연구로는 위엔잉이의 「가해자에서 같은 배를 탄 동시대인으로: 한국문학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 변주」¹가 있는데 이는 단편적인 논의에 머물고 있다.

이 글은 중한수교이후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중국의 56개 민족 중의 한족을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한족과 다른 소수민족은 문화나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중국인이라면 한족이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중국 인구는 13억 9008만 명인데 2010년 인구조사결과에 의하면 한족이 12억 2593만 2,641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91.51%를 차지한다. 그리고 재한중국

¹ 위엔잉이, 「가해자에서 같은 배를 탄 동시대인으로: 한국문학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 변주」, 『대산문화』 21호, 대산문화재단, 2006.9.1. pp.37-40

인 중 한족 인구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36,1765명²이다.

이 글은 타자 시각에 비치는 중국인 형상(이미지)을 타자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더불어 나아가서 한국 사회와 문화, 이러한 이유를 갖게 된 문화공간의 원인과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형상학은 1990년에 제기된 분석 이론이다. 형상학에서는 '타자'형상에 대해 '자아'와 관련된 '타자'에 대해 긍정적이고 동경의 대상인가 아니면 부정의 대상인가 하고 양분하고 있다. '유토피아'인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인가 이러한 양극화된 시각을 함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자기가 속한 사회나 집단, 혹은 계급의 기반을 이루는 신념체계라 할 때 이는 '자아'에 대한 긍정임과 동시에 '타자'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난다. 다시말하면 작품에 나타난 '타자'를 바라보는 작가의 이데올로기적 형상은 '자아'의 사회나 문화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을 결속시키는 작용을 하며 동시를 '타자'를 판단하려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³ 이와 같이 '자아'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보는 동시에 '타자'에 대해서는 동경의 시각을 보이는 것을 형상학에서는 '유토피아'라고 한다. 이는 주로 한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과도기에 발생하는데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부정과 새로운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유럽 학계에서 주장하는 양극화된 시각으로서 '자아'와 관계하는 '타자'에 대해서 수직적 측면에서 조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타자'에 대해서는 유토피아식 형상이나 이데올로기식의 규정은 '자아'를 중심으로 비교해서 '타자가 어떠한가'라는 우열을 밝히는 과정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타자'를 수평적 관계에서 본다면 그 '타자'는 배타적 '그'가 아니라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너'가 되며 이러한 '나'와 '너'사이에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형성된다. 이는 M.부버의 견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자타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와 비인격적 관계로 구분하면서 인격적 관계에서의 '타자'는 '나'와 동등한 인격체인 '너'로 존재하며 비인격적 관계에서는 '나'와 별개인 '그'로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타의 관계는 '타자'가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너'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⁴ 여기에서 '너'인 인격적 관계는 상대방이 '유토피아' 형상이라 할 수 있고 '그'인 비인격적 관계는 상대방이 '이데올로기' 형상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문학작품에 나타난 타자 형상을 해석하는데 유효하다.

² 2017년 3월 한국출입국관리소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은 총 2031,677명인데 그중 중국인은 986,804명이다. 중국인 중 한족은 361,765명이고 조선족은 625,039명이다.

³ 陳厚 等 主編 『比較文學』 高等教育出版社, 1997, p.174

⁴ 김창호, 「동아시아 '타자' 형상 비교연구-만보산 사건을 수용한 한중일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31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4년, 380-382면 참조; 孟華 主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pp.118-125 참조

이 글에서는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를 살펴봄에 '너'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유토피아' 형상과 '그'의 비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이데올로기'형상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형상 부각자의 다른 일면도 비추어 보고자 한다.

타자형상은 타자의 현실 표상에 대한 간단한 복제가 아니라 하나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는 타자를 바라보는 시간, 거리, 빈도수, 신분, 장소, 선입견 등이 포함된다. 즉 문학작품 속에서의 타자형상 연구는 문화현실에 대한 재현이다. 이러한 재현은 그것을 창작하는 개인 혹은 단체의 의식형태와 그런 문화적 공간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문학작품에 투영된 중국인 이미지는 한국 사회에서 중국인을 바라보는 시각, 그들의 문화적 심리와 역사문화의 맥락, 그리고 한중관계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이유를 갖게 된 문화공간의 원인과 맥락을 살펴보고 타자성의 관점을 이해하고 타자의 민족, 이념, 혈연이라는 조건을 넘어서 '무조건적인 만남'과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너', 유토피아 형상으로서의 중국인

형상학 이론에서 '유토피아'는 자아'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보는 동시에 '타자'에 대해서는 동경의 시각을 보이는 것이다. 유토피아 형상의 사회적 상상과 사회 실천 의의는 "양인억기(揚人抑己)(타자를 찬양하고 자신을 억누르다)의 이국형상이다. 유토피아형상은 본질적으로 자아를 부정하고 자신이 처한 사회문화현실에 대하여 도전한다. 이는 주로 한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과도기에 발생하는데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부정과 새로운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유토피아 형상을 나타낸 한국현대소설 속의 인물로는 강석경의 단편소설 <300마일>에서의 중국여성들, 조정래의 장편소설 <정글만리>에서의 여대생 리엔링, 박찬순의 단편소설 <지하삼림을 가다>에서의 10대 중국소년 등이 있다.

2.1 중국 여성의 사회 지위와 자아실현 형상

강석경의 단편소설 <300마일>은 1인칭 주인공 50대 한국여성의 관찰자 시점으로 그녀가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체험한 일들을 엮어나감에 한국 사회와의 비교 속에서 중국 사회와 문화, 정치, 경제, 윤리, 가치관, 그리고 미래와 폐단 등에 대해 담론하고 있다. 주인공 인영은 한국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세 살난 아들은 시어머니에게 남겨두고 중국 광저우 도시로 간다. 광저우에서 그녀는 한편으로는 학생 신분으로 학원에

서 중국어를 배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신분으로 고려물산 한국회사의 중국인 직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 인영은 발달한 광조우 음식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발전하는 중국, 훌륭한 지도자를 둔 중국에 흥미와 동경을 나타내었지만 실제로 그녀가 가장 부러웠던 것은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였다.

인영의 눈에 비친 "중국은 문화 혁명으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성에 개방적인 나라"이고 "여성상위시대"(138쪽)였다. "중국여성들의 모습은 그지없이 활달하고 발랄"했으며 "기차 여행 중에 보았던 중국 여승무원들도 당당하고 거침없이 직무를 수행"(154쪽)했다. 그리고 "여성들은 식당에서 아이를 안은 채 수수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한국 사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성이 강요된 사회, 여자 스스로도 거의 강박관념처럼 모성에 매달리는 사회라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참을 터."(142쪽)이라고 했고 "중국의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부부는 부인의 지위가 더 높았는데 회사에서도 남편이 일을 못하면 마구 호통을 친다"는데 "물론 공과 사가 분명해야겠지만 한국에서라면 그런 일이 있겠"(154쪽)이라고 질문한다. 인영은 "가부장제를 뛰어넘은 중국여자들이 좋았"(154쪽)고 "중국은 여자천국"이고 "여자들을 보면 중국에 희망이 있다"(154쪽)고 단언한다.

중국에서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떳떳하게 일하는 장면이나 가족에서도 자연스럽게 소박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보며 인영은 한국 사회를 떠올린다.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이고 남녀불평등하며 남편에게 맞고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나 시누이 같은 여성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만이 여성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한국적 친정어머니가 있고 이혼만 안하면 모두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선배나 이웃들이 있다. 인영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잘못된 행복관을 꼬집는다. "속을 들치면 너나없이 환부를 가지고 있건만 한국인들은 겉만 무사하면 잘된 삶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에 대한 상상력이 결핍되어서 관습을 군주처럼 섬기고, 남보다 가진 것이 많으면 성공이라 여기는 사람들, 영혼의 질과 상관없는 가짜 행복들이 환부에 당의를 입힌 채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인영은 행복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행복이란 것이 가볍고 비속하다는 것을 알기에 무관심할 뿐이다."⁵ 바로 행복의 진실을 알기에 그의 눈에 비친 중국여성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사회적 규제를 받지 않으며 당당하고 행복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러한 여성의 지위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중국남자와 중국 문화혁명의 배경이 있다고 역설한다.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하여 더없이 편한 중국남자들. 여자를 위해 요리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알고 약국에서 두 여자가 자위기구를 들여다보아도 아무도 쳐다보거나 히죽거리지 않았다. 땅이 크면 사람들도 대범해지는 것일까. 좁은 반도에서 유교가 허위와 가식의 문화를

⁵ 위 책, 136쪽.

만들었다면 혁명으로 스스로 해체하고 쌓아올린 중국인들은 더 이상 꾸미고 과장할 것이 없
어 솔직했다.⁶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중국남자들의 대륙적인 기질과 더불어 사회적 변혁과도 관련
된다. 실제로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여러 변혁을 거쳤다.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이전
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부모지명, 매작지언(父母之命,媒之言)"라고 여성들의 결혼은 부모의
동의와 중매쟁이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졌고 시집간 딸은 "생자농장, 생녀농와(生子弄璋, 生
女弄瓦)" 아들을 낳으면 구슬을 장난감으로 주고 딸을 낳으면 기와를 장난감으로 준다는 말
이 있었고 "여자무재변시덕(女子無才便是德)"라고 여자가 재능 없는 것이 바로 덕이었으며
여자는 어릴 때부터 발을 천으로 싸두어 자라지 못하게 전족(纏足)을 하였다.

그러다가 1911년 신해혁명을 계기로 서양의 새로운 문물과 신사상이 들어오면서 자아를
강조하고 여성해방을 논하는 '여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으며 여성운동이 일어났다. 19
49년 신중국 건립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회는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교육, 사회생활 각
방면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남녀 혼인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대약진운
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여성노동력의 필요성이 증가되었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
어났다. 제2차 전국 부녀자 사회지위 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도시농촌 근로자 중 여성
노동력은 3.3억 명으로 총 근로자의 47.7%가 여성이었고 『중국부녀보(中國婦女報)』에 따
르면 16%의 여성들이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78년 덩소평의 개혁개
방정책과 실용주의 노선을 거치면서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더욱 활발해졌고 지위도 더욱 상
승하였다.

주인공은 중국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여성의 사회지위가 상승
할 수 없는 한국사회 폐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중국에서 전래된 공자의 유교문
화와 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너무나 치우친 나머지 걸치레를 따지는 허위와 가식의 문화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문화의식은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

⁶ 위 책, 138-139쪽.

면서 여성의 자유를 속박하는 도구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인영의 꿈은 "지금은 문화소비자이지만 돈을 벌면 뒤에 중국여성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어보고 싶"(149)은 것인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한국여성의 지위상승을 기대하는 바램일 것이다.

강석경의 <300마일>이 중국여성들의 군상을 통해 여성 지위를 말하고 있다면 조정래의 『정글만리』에서는 매혹적인 외적 미모에 지적 매력, 사랑을 쟁취하는 활발하고 진보적인 성격을 갖춘 여대생 리엔링의 유토피아 형상을 부각하고 있다.

리엔링은 중국 명문대의 여대생으로서 "싱그럽고 청순한 얼굴"(1-130)에 검은 윤기가 도는 긴 머리칼을 가졌으며 몸까지 늘씬한 중국 남방 미인이었다. 게다가 공부욕구가 강해 틈난 나면 책을 펼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었고 부잣집 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리완싱처럼 과시욕이 없이 소박하였다.

중국의 최고학부인 베이징대학교 역사학과 학생인 그녀는 국제국내정세에 대해 자신의 사상과 관점이 뚜렷한 신세대 중국지식여성의 전형이다. 그녀는 마오 주석의 공로와 당대 중국인들의 신앙의 필요성과 마오 주석에 대한 신격화의 연결성,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한국으로서의 영세중립국으로서의 필요성 등에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

리엔링은 베이징대 한국유학생 송재형과 사귀었는데 송재형은 리엔링의 영향으로 전공을 경제학으로부터 역사학으로 전과하였다. 송재형은 무궁무진한 힘과 잠재력을 가진 중국과 중국의 역사를 연구해 중국학 교수로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그는 여자친구 리엔링을 통해 중국사회와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갖게 되고 여러 궁금한 점들도 그녀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간다. 송재형은 가끔 한국이 땅이 작은 나라이고 분단된 민족이라는 데 열등감을 갖게 되는데 리엔링은 그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다. 또한 한국이 작은 나라이고 예전 중국의 속국이라고 딸이 한국인과 연애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아버지인 리완싱을 설득시킨다. 소설의 결말은 리엔링과 송재형의 사랑의 국경을 뛰어넘은 국제 사랑의 쟁취로 해피엔딩 된다. 이러한 국제결혼은 민간차원 뿐만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한중관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중한관계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⁷와 함께 더욱 밝은

⁷ 동반자관계는 세 가지 기본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는 서로 대항하지 않고 양국 우호를 발전시킨다. 두

미래를 희망하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1992년 수교이후 중한관계는 경제, 통상을 중심으로 한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다가 1998년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군사, 안보, 문화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양국 협력수준을 한 차원 격상시켰다. 중국은 지난 1996년부터 수교국과의 양자관계를 단순 수교관계에서, 선린우호관계, 동반자관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혈맹관계의 다섯 개 순으로 협력순위를 높였다. 중한관계에서 한국은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러시아(1996), 미국(1998)에 이은 전략적 동반자관계이다. 조선과는 혈맹관계로서 최고단계이다. 소설은 부상하는 중국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중한동반자관계가 앞으로 더욱 협력하여 격상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2.2 한국과 한류에 매료된 10대 중국소년 형상

박찬순의 단편소설 <지하삼림에 가다>에서는 밝고 씩씩하며 한국문화와 한류에 매료된 10대 중국소년의 이데올로기 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박찬순의 <지하삼림에 가다>에서 주인공 나는 연길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다. 세미나의 목적은 다중언어정보처리로 중국인들에게 한글에 대한 흥미를 돋우어주는 것이다. 세미나가 끝나고 장백산 관광을 가게 되는데 관광 버스를 타게 되면서 10대 중국소년과 짝이 된다. 교사인 부모와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이 10대 소년은 베이징 북쪽 허베이성 출신의 고교 1년생으로서 이름은 유안수아(袁率)⁸이다. 수아는 아버지의 분부대로 깎듯이 예의있게 내 가이드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영어를 제법 할 줄 알아 버스 안에서부터 내 친구가 되었다.

번째는 상호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아래 서로 의견이 다른 사안은 일단 제쳐두고 의견 일치점을 보이는 문제부터 협의해나간다. 세 번째는 어느 특정한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동반자관계는 전략적 또는 건설적 수식어가 붙으며 그에 따라 조금씩 내용을 달리한다. 중국은 프랑스(97), 인도(98), 영국(98)와 건설적 동반자관계를 체결하였다.

⁸ 원문 248쪽에서는 "베이징 북쪽 허베이성 출신의 고교 1년생 유안 수아(袁率), 유안(袁)은 성이고 이름은 수아(率),"라고 중국 성 '유안'을 '袁'로 표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자 '袁'의 독법은 '아이'로서 '유안'으로 읽는 한자 '袁'을 잘못 표기한 오자라 본다. -필자

수아는 "외국엔 나간 적이 없는 데도 웬만한 우리나라 대학생, 아니 어학 연수를 1,2년 다녀온 우리나라 대학생 수준의 영어를 구사했다." (248쪽) '나'는 수아가 "뺨뺨머리에 풍성한 콧방울, 길고 두꺼운 눈썹, 그리고 곱이 까칠하게 튼 입술"를 지녔는데 "누군가를 꼭 빼닮은 모습이다"고 생각한다. 수아는 여러 면에서 좋았다. "공부에 지쳐 보이지 않으면서도 영어도 잘하고 운동도 세 가지나 하는 데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게임에도 빠져 있지 않은 건강한 아이"(267쪽)였고 "뽕뽕하고 힘찬 기세를 지니고 있"었고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없이, 세계를 향해 끝없이 열려 있는 천진스러운 아이"(268쪽)였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 만난 지 겨우 1주일, 그것도 세미나장에서는 별로 얘기도 나누지 못하고 얼굴만 알고 있다가 오늘 백두산행 버스에서 말을 튼 아이에게 나는 말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수아에게 느끼는 이 훈훈한 감정은 또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전혀 이국 소년 같지가 않고 마치 이웃집 아이처럼, 어쩌면 가족처럼 가깝게 여겨졌다. 단지 영어가 통한다는 이유에서일까. 그건 단연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영어가 아니더라도 수아와는 손짓과 발짓, 눈짓으로도 아마 잘 통했을 것 같다." (253쪽) "어쨌든 수아와는 마치 전부터 알고 있던 아이처럼 한나절 만에 절친한 사이가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외모가 수려하거나 말재간이 있는 아이도 아닌데. 나 혼자만의 착각일까. 나는 이렇게 중심 없이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있다. 억측인지는 모르지만 수아도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각별하다는 느낌이 든다." (255-256쪽)고 했다.

인식은 서로 상대적이어서 한국인 나뿐아니라 중국인 소년 수아도 한국에 대한 인상이 대단히 좋으며 한국에 유학을 가고자 한다.

"서울은 핑장이 발전된 도시라고 들었어요. 아름답다고 하던데 빨리 가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지 않나, 대학에 가서는 무슨 공부를 하고 싶으냐는 내 말에 이렇게 답해서 나를 놀래키질 않나.

"의대에 갈 건데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해줘야 할 텐데."

"의대는 거의 영어를 쓴대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죠. 뭐"

교사 부모의 능력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겠지만 내 눈에는 벌써 서울의 대학생들 사이에 끼어있는 키다리 의대생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⁹

"한국은 의학도 많이 발전됐고 매력있는 나라예요. 드라마 <대장금>도 본 걸요."¹⁰

수아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소년이다. 그는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을 보았고 한국이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굉장히 발전했다는 것을 알고 한국 서울대에 가서 의학을 배우고자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아는 음악선생인 아버지가 평소에 흥얼거리는 아리랑을 듣고 자신도 아리랑을 부른다.

수아가 손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라 라라 라라 라라라라.....
아리랑 멜로디다. 허밍으로 두소절을 부르더니 놀란 내 얼굴을 보며 말한다.

"아빠가 자주 흥얼거리세요. 음악선생님이거든요."

수아가 백두산 숲 속에서 아리랑을 흥얼거리는 모습을 바라보자 이 산이 장백산이 아니고 원래는 백두산이라는 얘기 따위는 꺼내고 싶지 않다. 나는 오른손 검지로 수아의 손바닥에 '아리랑'이라고 천천히 쓴다. 내 오른손 검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손바닥에 자음과 모음을 그려갈 때마다 간지러워서인지 아니면 따라하느라고 그런지 소년의 입술이 조금씩 달싹거린다. 이윽고 수아가 아,리,랑하고 크게 소리를 낸다. 벌어진 수아의 입속에서 혀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겉은 조금 튼 것 같지만 속은 유난히 붉고 윤곽이 또렷한 입술, 그 안에 약간은 누런 기가 도는 탄탄한 앞니 두 개가 대문짝만 하게 자리 잡았다.'아'는 수아라고 할 때의 아, '리'는 여배우 꿈리의 리, '랑'은 배우 량차오웨이 때의 량이야. 내 설명에 수아는 아, 리,랑, 아,리,랑하고 소리내어 읽는다.¹¹

결에서 뭔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수아가 부르는 아리랑 멜로디다. 으으음 으으음 으으으음 으으음 으으음 카오야 허브 허밍에 카오야 허브를 섞어 들릴 듯 말 듯 부르는

⁹ 박찬순, <지하삼림을 가다>, 『발해풍의 정원』, 문학과 지성사, 2009. 256쪽.

¹⁰ 위 책, 257쪽.

¹¹ 위 책, 258쪽.

노래소리에 나는 수아가 애당초 낯선 이국의 소년이 아닌듯한 착각에 빠진다.¹²

수아는 비록 아리랑의 깊은 함의를 모르고 부르지만 그가 아리랑 노래를 할 줄 안다는 것만으로도 나와서의 깊이 있는 교감이 형성된다. 수아에게 써주는 아리랑 글자, 한글이 아닌 중국인명을 곁들여 써보이는 한자, 여기에는 수아에 대한 친근감과 중국문화 궁리와 량초 위이에 대한 동경이 있다. 이들의 친근감은 문화에 대한 상호적인식과 배려에서 출발한 것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아리랑멜로디, 아리랑은 한민족의 운명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노래로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민족의 노래이다. 현재 50여종의 갈래에 8천여수로 세계로 널리 퍼져있는 아리랑은 한민족의 유전자 압축과일같은 존재로서 거기에는 민족정서인 한과 대동정신의 신명과 같은 감성, 하나가 되는 어울림 정신이 있다. 한국 아리랑을 대표하는 한류의 세계적 열풍,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조선의 아리랑대집단체조, 그리고 세계스포츠대회에서 여러 차례 남북의 스포츠단일팀의 국가나 응원가로 된 아리랑은 민족과 세계 통합적 이데올로기로서 남북의 화합과 세계 화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리랑정신은 예술을 넘어서서 손에 손잡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대동과 상생의 한마당,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통섭과 평화의 장, 어울림의 장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아리랑 정신이 국제적으로 나와 수아를 어울리게 하였고 수아를 한국문화에 매료되게 하지 않았나 싶다.

내 눈에 비친 수아는 한류에 매료되고 한국을 동경하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소년이다. 이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상호인식과 이해, 존중, 그리고 상호믿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3. '그', 이데올로기 형상으로서의 중국인

형상학의 이론에서 이데올로기는 자아와 관련된 타자형상에 대해 '자아'에 대해서는 긍정

¹² 위 책, 266-267쪽.

적 시각을 갖고 보는 동시에 '타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자기가 속한 사회나 집단, 혹은 계급의 기반을 이루는 신념체계라 할 때는 '자아'에 대한 긍정임과 동시에 '타자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난다.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데올로기 인물 형상으로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오정희의 단편소설 <중국인 거리>에서의 중국인, 조정래의 장편소설 <정글만리>에서의 농민공과 같은 가난하고 편견 받는 최하층의 중국인 형상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래의 <정글만리>에서의 왕링링, 박찬순의 <가리봉 양꼬치>에서의 뱀파 등과 같은 비도덕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심지어 남을 살인까지하는 부정적인 중국인 형상이다.

3.1 가난하고 편견 받는 최하층 인물 형상

오정희의 단편소설 <중국인 거리>는 아홉 살배기 버짐투성이 계집애인 나의 시점으로 아버지를 따라 인천쯤으로 짐작되는 중국인 거리로 이사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겪은 일들을 적고 있다. 중국인거리는 가난과 상처와 만남과 이별,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혼종적 부정성으로 얼룩져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일곱 번째 아이의 임신과 출산, 친구 치옥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양갈보 매기언니의 죽음, 중국인 거리와 중국인들이 등장한다.

주인공인 '나'에게 최초로 목격되고 자각된 중국인 거리는 내가 피난지인 시골에서 꿈꾸어 오던 도회지와는 달랐다. 이는 초라하고 지저분한 해안촌이었다.

폭이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조그만 베란다가 붙은, 같은 모양의 목조 이층집들이 늘어진 거리는 초라하고 지저분했다.¹³

길은 언덕으로 이어져 있고 ...넓은 벽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창문이나 출입문이라고 볼 수 있는 문들은 모두 나무 덧문이 완강하게 닫혀져 있어 필시 빈집이거나 창고이리라는 느낌이 짙었다.¹⁴

햇빛이 밝은 날에도 한쪽 덧문만 열린 가게는 어둡고 먼지가 낀 듯 침침했다.¹⁵

갑각류의 동물처럼 입을 다문 집들은 초라하게, 그러나 대개의 오래된 건물들이 그러하듯

¹³ 오정희, <중국인 거리>, 『옛우물』, 청아출판사, 1994, 248쪽.

¹⁴ 위 책, 249쪽.

¹⁵ 위 책, 252쪽.

역사와 남겨지지 않은 기록의 추측으로, 상상의 여백으로 다소 비장하게 바다를 향해 서 있었다.¹⁶

'좁은 길' '조그만 베란다' '지나치게 작은 창문이나 출입문' '오래된 건물' 등은 비좁고 침침한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고 '빈집' '창고'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건물들은 인적이 드물고 황량한 공간임을 말하고 있다. 바다를 향해 서있는 해안촌으로 미루어 대개 인천섬의 중국인거리로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인거리에 사는 중국인들로는 푸줏간 홀아비 중국인, 잡화점에 모이는 늙은이들, 저녁 무렵이 되면 바구니를 팔에 걸고 가게 앞에 모여드는 중국인들이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푸줏간이나 잡화점, 이발소 등 최하층의 일들이었으며 행색도 초라하고 중국적이었다. 푸줏간의 홀아비 중국인은 "한 쪽 볼에 힘껏 쥐어질린 듯 여문 밤뜰만한 흑이 달리고 그 흑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끄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친 수염을 길"렀으며 저녁 무렵 중국인 거리로 향하는 중국인 여자는 "뒤통수에 쇠통처럼 바짝 말라 붙인 머리를 조금씩 흔들며 엄청나게 두꺼운 껏불에 은고리를 달고 전족한 발을 뒤뚱거리며 여러 갈래로 난 길을 통해 마치 땅거미처럼 스름스름 중국인거리를 향했다." 그리고 대개 늙은이들은 가게 앞에 내놓은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대통담배를 피웠다. 소수의 중국인과 중국문화의 거류지로서의 중국인거리는 형성되어 있으나 이는 그들만의 공간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공간의 고립은 주체와 타자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타자인 중국인을 바라보는 주체의 시선은 회화화 되어있거나 비인격적이다.

통틀어 중국인 거리라고 불리는 동네에, 바로 그들과 인접해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 중국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아이들뿐이었다. 어른들은 무관심하게, 그러나 경멸하는 어조로 <뻘놈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밀수업자, 아편쟁이, 누더기의 바늘땀마다 금을 넣는 쿠리, 그리고 말밭 굽을 울리며 언 땅을 휘몰아치는 마적단, 원수의 생 간(肝)을 내어 형님도 한 점, 아우도 한 점 씹어 먹는 오랑캐, 사람 고기로 만두를 빚는 백정, 뒤를 보면 바지도 울리기 전 꼴꼴이

언 채 서 있다는 북만주 별판의 똥덩어리였다. 굳게 닫힌 문의 안쪽에 있는 것은, 십년을 사귀어도 좀체 내뱉지 않는다는 깊은 흉중에 든 것은 금인가, 아편인가, 의심인가.¹⁷

중국인에 대한 경멸의 호칭 "폐놈들"¹⁸, 그리고 밀수업자, 아편쟁이, 쿠리, 마적단, 오랑캐, 백정, 똥덩어리 등 부정적 의미로 가득 찬 인칭명사들은 중국인, 재한 구화교에 대한 편견과 멸시, 비인격화된 타자성을 읽을 수 있다. 나아가서 중국인에 대한 적대의식과 이데올로기도 볼 수 있다. 이는 분단국가로서의 한국이 국민국가 건설의 길을 걸어오면서 중국인에 대한 화교차별과 편견이 이념 대립 속에서 개인과 개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더욱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생존적인 선택에 의해 생계형으로서 재한 화교들이 모여 사는 중국인거리가 디아스포라 공간이며 중국인이 디아스포라 주체임을 보여준다.

조정래의 장편소설 『정글만리』에서는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산업화를 위해 말없는 공헌을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고 편견 받는 가난하고 비천한 농민공 부부의 형상을 부각하고 있다.

소위 "농민공이란 개혁개방이후 가난한 농촌에서 벗어나 돈벌이를 하려고 도시로 몰려든 부랑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전 세계가 놀라는 중국의 비약적이고 눈부신 경제발전의 맨 밑바닥에서 온갖 굶은일들을 다 해낸 계층이었고 그러면서도 도시 빈민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의 수는 어림잡아 2억5천만으로 썩해졌다."¹⁹ 쑹칭과 장완싱도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돈벌이하러 온 농민공 부부이다. 고향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자와 함께 생활하

¹⁶ 위 책, 249쪽

¹⁷ 위 책, 253쪽.

¹⁸ 국어사전에 실린 표준말은 '폐놈'이나 '똥놈'이 아닌 "되놈"이다. 그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첫째로 '되'는 원래 두만강 근처에 살던 민족명(여진족, 만주족)으로, '돌(사람)+ 이 > 도리 > 도이 > 되'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옛날 민족의 명칭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에 오랑캐도 조선반도 북쪽에 살았던 민족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되'를 '뒤'의 모음 교체형으로 본다면, '뒤'가 중세어에서 '북쪽'의 의미가 있으므로, '되놈'은 '북쪽 사람'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병자호란(丙子胡亂)」은 말 그대로 호란(胡亂)으로서 '되놈' 곧 청나라 만주족이 침략했던 것인데, 일반적으로 중국의 한족이 쳐들어왔던 것으로 오해하면서 이 땅에서는 중국인들을 칭할 때 그들을 비하하여 왔다. 본래 '폐놈'은 중국인을 칭한 것이 아니라, '호인(胡人)'의 '호(胡)'字 훈(訓)이 '되'로서 '되놈(오랑캐)' 곧 여진족(- 후에 만주족)을 지칭했던 것인데, 경음화(硬音化)가 되면서 '폐놈'으로 일컫게 된 것이다.

고 있었다. 그들의 꿈은 도시에서 돈을 벌어 고향에 잡화상을 꾸리고 아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에서 송칭은 파출부로, 장완싱은 고층건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그들의 생활은 톡톡치 않았다.

자신(송칭)이 두 집에서 일해 버는 것이 한 달 3,000위안(60만 원)이었고 남편이 버는 것이 2,000위안 정도였다. 그 돈에서 단칸 셋방의 월세로 1,000위안,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식비로 1,500위안이 나갔다. 그럼 나머지 돈 2,500위안을 전부 고향으로 보냈다. 시골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있었다. 세 입이 먹고, 아들 학교를 보내는 데 1,200위안 정도가 쓰였다. 소(초등)학교지만 그 뒷바라지가 쉬운 게 아니었다.²⁰

농민공들의 수입은 적고 기본적인 생활비는 지출하게 되어있어 별로 남는 게 없었다. "농사만 지어온 농민공들은 누구나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다. 그들이 믿을 건 몸뚱이 하나 뿐이었고 몸뚱이는 그들의 전 재산이었다."²¹ 이러한 전 재산인 몸뚱이가 쓸모없게 되는 일이 장완싱에게 발생한다. 그는 고층아파트 공사장에서 떨어지는데 작업모 덕에 머리에 별 이상이 없어서 빨리 깨어났지만 왼쪽 갈비뼈가 세 대, 그리고 다리뼈까지 부러졌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지만 치료비가 없어 그는 그냥 저는 다리로 퇴원한다. 회사측은 보상은커녕 오히려 깡패를 시켜 때리고 가두고 올려맨다. 결국 그는 회사에 저항하는 행위인 분신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한다.

"농민공 현상은 "중국 개혁개방 이래, 빠른 속도로 산업화로 진입하면서 생겨난 경제개혁과 제도변천으로 인해 산생된 산물이다. 가족 단위농업생산책임제의 실행, 도시 경제의 재편성, 민영 경제의 흥기와 외자유치, 그리고 인구 유동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 대량의 "잉여노동력"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농민공의 수량은 1980년대 초기의 1-2천만 명으로부터 점점 늘어나 현재는 대체로 2억 되어 중국

¹⁹ 조정래, 『정글만리』 1, 해냄, 2013, 340쪽.

²⁰ 위 책, 352-353쪽.

²¹ 위 책, 345-346쪽.

노동자 총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농민공은 중국의 광업, 제조업, 건축업 및 날로 발전하는 서비스업 등 여러 영역에 대량의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그들은 도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외자를 끌어들이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호적제도를 중심으로 한 낡은 체제의 억제로 인하여 농민공은 여러 면에서 차별 대우와 배척을 받고 있다. 그들은 정상적인 도시 거주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 교육, 의료 및 사회보장 등과 같은 도시 주민들이 소유할 복지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그들의 합법적 권익마저 보장받지 못한 경우까지 존재한다. 이를테면 작업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강도가 크거나 산재 사고율이 높거나 체불 노임 등 문제가 심각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²² 중국에서의 농민공 문제와 그 근원이 되는 호적제도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3.2 사기치고 살인하는 범법자 형상

조정래의 장편소설 『정글만리』에서 왕링링은 중국에 사업하러 들어온 재미화교이다. 그녀는 여러모로 매력적인 면이 있지만 사기치고 절도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등장한다. 왕링링은 머리가 뛰어났고 사업욕이 남자들을 능가하여 거침없고 망설임 없이 자신만만하였다. 그리하여 골드 그룹 건축 총괄사장인 앤디 박은 왕링링의 미모에 현혹되지 않을 남자가 없고 그녀의 폭넓은 지식에 감탄하지 않을 지식인이 없음을 흔쾌하게 인정한다. 미모에 자신 있고 지식에 자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사업에도 언제나 자신이 넘쳐 '미모에 자신 있고 지식에 자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사업에도 언제나 자신이 넘쳐 "그동안 그녀의 중국 사업은 막힘 없고 꼬임 없이 승승장구해왔다." 그러나 그녀는 사업을 함에 수단을 가리지 않았는바 중국에서 10여위 고위직 관리의 열나이로 알려지고 계획부도란 죄명으로 외국에 도망간다. 외모는 아름답고 일도 잘해나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질과 금전의 노예가 되는 왕링링의 형상을 부각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상이기도 하다.

박찬순의 단편소설 <가리봉 양꼬치>에서는 중국인 깡패인 뱀파와 호박파가 등장한다. 그

²² 郑功成黄黎岩莲, 《中国农民工问题与社会保护》, 人民出版社, 2007

들이 활개치며 다니는 가리봉거리는 더럽고 허름하고 지저분하며 한국인, 중국인, 조선족이 혼재하는 디아스포라 공간이다.

마주 오는 차 두 대가 겨우 길을 비켜갈 정도로 좁은 구로공단 가리봉 오거리 시장 통엔 연길양육점(延吉羊肉店), 금란반점(今丹飯店), 연변구육관(延邊狗肉館) 등 한자로 쓰인 허름한 간판이 즐비하고 어디선가 진한 향료냄새가 훅 풍겼다. 앞에서 보면 작고 나지막한 옛날 집들이 피곤에 찌든 어깨를 서로 기댄 채 겨우 체면치레를 하고 서있고 뒤쪽으로 돌아가면 버려진 냉장고며 싱크대, 녹슨 철사 뭉치 등 온갖 쓰레기더미를 그려안고 있는 동네였다. 언제 주저앉을지 모를 만큼 폭삭 삭아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리는 간판에서 언뜻언뜻 보이는 붉은색으로 인해 겨우 기운을 찾는 듯이 보였다. 이따금씩 머리를 박박 깎거나 스포츠형으로 바삭 치고 짙은 눈썹에 몸집이 건장해 보이는 사내들 몇이 중국말을 주고받으면서 지나갔다. 여름철엔 그런 사내들 팔뚝에 뱀이나 호박 모양의 문신이 새겨진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것이 뱀과와 호박과를 뜻한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교포들은 이들 얘기가 나올 때면 입을 빈정거렸다.

“체불 임금 해결사는 무슨, 지들이나 날강도질 말라디.”²³

가리봉 오거리는 “마주 오는 차 두 대가 겨우 길을 비켜갈 정도로 좁은 거리”이고 “언제 주저앉을지 모를 만큼 폭삭 삭어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리”이다. 거기에 당장 무너질 것 같은 나지막한 옛날 집에 쓰레기더미에 뱀과나 호박과나 하는 중국 깡패들이 활개 치며 다니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위험한 거리다. 뱀과와 호박과들은 "머리를 박박 깎거나 스포츠형으로 바삭 치고 짙은 눈썹에 몸집이 건장"해보이는 사내들로서 "팔뚝에 뱀이나 호박의 모양의 문신"을 새겼다. 이들은 가리봉에 있는 가게들의 체불 임금 해결한다는 명의로 날강도질 하였다.

뱀과와 호박과는 한국내 침투한 외국인 조직 폭력배들이다. 외국인 주먹들이 국내에서 ‘조폭화’된 것은 2000년 전후다. 처음엔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거나 환치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유흥업소 관리, 인신매매, 마약밀매, 보이스피싱, 청부폭력에까지 손을

²³ 박찬순, <가리봉 양꼬치>, 『발해풍의 정원』, 문학과 지성사, 2009. 74쪽

뻗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조직은 중국계 조직인 ‘흑사회(黑社會)’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 들어온 흑사회 멤버들도 초기에는 흑룡강파·뱀파·호박파 등 군소 조직으로 나뉘져 활동하다 2005년 중국 흑사회 행동대장 출신이 밀입국한 뒤 ‘연변 흑사회’를 만들어 통합하면서 부상하기 시작했다. 연변 흑사회가 등장하기 전 차이나타운은 ‘흑룡강파’가 사실상 맹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흑사회가 점점 조직을 확대하자 2006년 12월 흑룡강파는 도전하는 흑사회의 두목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8일 만에 복수에 나선 흑사회에 의해 흑룡강파는 무참히 보복을 당했고, 이후 흑사회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차이나타운을 장악하기 시작했다.²⁴

<가리봉 양꼬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소설 속 주인공 불법체류자 김과가 양꼬치의 레시피를 뱀파와 호박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칼에 찔려 죽는다. 가리봉에 등장하는 이주자들의 이야기는 이토록 어둡고 침침하고 절망적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외국인 조폭은 14개국 65개 파 정도이며 약 4600여 명에 이르는데 그중 중국인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들은 마약, 납치, 청부살인 등 저지르는 범죄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다 범행 후 해외로 잠적하거나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등 추적도 쉽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 결론

이상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를 타자의 시각으로 비교문학 형상학 이론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현대소설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는 유토피아형상과 이데올로기형상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토피아형상은 자아'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보는 동시에 '타자'에 대해서는 동경의 시각을 보이는 형상이다. 여기에는 중국여성의 사회 지위와 자아실현 형상과 한국과 한류에 매료된 10대 중국 소년 형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강석경의 단편소설 <300마

²⁴ <https://www.ilbe.com/164612302>

일>에서 한국인 주인공 인영은 중국 광저우에서 여성 군상들을 통해 중국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 평가하는데 이는 중국 남성과 혁명을 거쳐 쌓아온 것이라 하며 반면에 한국 사회는 깊이 뿌리박힌 유교사상으로 인하여 가식과 허례를 중시하는 사회풍조를 산생시켰다고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조정래의 장편소설 『정글만리』에서의 베이징대 여대생 리엔링은 중국 신세대 지식여성의 전형이다. 그녀는 외적 미모에 지적매력까지 갖추었으며 역사학과 학생으로서 현 정세에 대해 자신의 분명한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유학생 남자친구와의 사랑 쟁취를 위해 반대하는 아버지를 설득한다. 국경을 넘어선 국제적 사랑의 해피엔딩은 중한양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제시한다. 박찬순의 단편소설 <지하삼림을 가다>에서의 10대 중국소년은 한국문화와 한류에 매료된 긍정적 형상이다. 바르고 씩씩하게 자란 소년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 나와 금방 친해졌으며 소년의 꿈은 서울대에 가서 의학을 전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한민족의 징표라 할 수 있는 아리랑 노래도 제법 잘하는데 문화공감이 형성된 우리는 서로에게서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단편소설 <300마일>에서는 주인공 인영이 중국여성의 사회지위에 대해 동경의식을 드러내고 자신이 살던 한국 사회에 대한 폐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정글만리』와 <지하삼림을 가다>에서의 주인공 리엔링과 10대소년의 형상은 '타자'와 '나'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

이데올로기형상은 자아와 관련된 타자형상에 대해 '자아'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갖고 보는 동시에 '타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형상이다. 여기에서는 가난하고 편견 받는 최하층 인물 형상과 사기치고 살인하는 범법자 형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오정희의 단편소설 <중국인 거리>에 등장하는 중국인거리는 초라하고 지저분한 타자화된 고립된 공간이다. 거기에 있는 중국인들도 희화화되고 비인격화되어 있다. 이는 한국이 국민국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부동한 이데올로기로 인한 재한 구화교에 대한 멸시와 편견, 비하를 보아 낼 수 있다. 조정래의 『정글만리』에서도 중국 산업화를 위해 공헌했지만 비천하고 사회의 편견을 받고 있는 농민공들이 등장한다. 이들의 불합리한 대우는 중국의 호적제도와 관련이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조정래의 『정글만리』에서 왕링

링은 외적미모에 사업까지 잘하는 재미화교이지만 비뚤어진 가치관으로 인해 모든 일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기 치고 도덕성이 타락된 부정적인 형상이다. 이는 현 사회 물질만능주의, 금전숭배주의로 인한 인간의 그릇된 일면을 꼬집고 있다. 박찬순의 <가리봉 양꼬치>는 한국 가리봉에서 활개 치며 다니는 뱀파와 호박파라는 중국인 조직폭력자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살인까지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범법자 형상이다. 외국인으로서의 그들의 존재는 경찰수사에 어려움을 줌과 동시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구화교나 농민공, 왕링링, 뱀파와 호박파와 같은 중국인들은 부정적 이미지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타자'의 시선으로 비인격화되고 희화화되어 있다.

한국현대문학작품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는 중한양국이 서로의 타자성의 관점을 이해하고 타자의 민족, 이념을 뛰어넘어 무조건적인 만남과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경쟁과 대립보다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희망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강석경, <500마일>, 윤후명 외 『나비의 전설』, 2002.
- 조정래, 『정글만리』 (1-3), 해냄, 2013.
- 박찬순, 『발해풍의 정원』, 문학과 지성사, 2009.
- 오정희, <중국인 거리>, 『옛우물』, 청아출판사, 1994.
- 陳惇 等 主編, 『比較文學』, 高等教育出版社, 1997.
- 孟華 主編,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
- 郑功成黄黎若莲, 《中国农民工问题与社会保护》人民出版社2007
- 김창호, 「동아시아 '타자'형상 비교연구-만보산 사건을 수용한 한중일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31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4년.
- 위엔잉이, 「가해자에서 같은 배를 탄 동시대인으로: 한국문학에 나타난 중국인 이미지 변주」, 『대산문화』 21호, 대산문화재단, 2006.9.1. pp.37-40

<https://www.ilbe.com/164612302>